

# 농촌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 변화추이

## The Changes of the Elderly'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Rural Area

정재훈\*

Jeong, Jae-Hoon

###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identify the changes of the elderly'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rural area during the past 20 years. Data from the survey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ducted in 1994, 1998, 2004, 2008, and 2014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a sample of 11,019 respondents who represent aged 65 and older in Korea rural area.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d that; First, the average age of the rural elderly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e rural elderly that hope to live with their grown-up children gradually declined. It means that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the elderly is steadily expanding. Second, the ratio of rural elderly living with their children is decreased from 43% in 1994 to 11% in 2014, whereas the single elderly household who are living alone or living with spouse increased. And more elderly live with married children in order to help their children rather than receiving help from them. Third, the frequency of intercourse with their children tended to decline gradually, in contrast with communication frequency with them mounted steadily during the past few decades. Finall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rural elderly was health status, economic level, child relationship with them, and residential environment.

키워드 : 노인, 농촌, 주거환경, 생활만족도

Keywords : Elderly, Rural Area, Residential Environment, Life Satisfactio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는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비율은 더욱 증가되어 노인복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5.1%이었던 것이 2010년 11%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가 예상된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고령화 정도가 더 심각하여 2010년에 도시지역의 고령인구가 9.2%인 데 비해 농촌지역은 20.6%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sup>1)</sup> 또한 자녀들이 성장하여 도시로 떠남에 따라 농촌지역에는 노인들만 사는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오래된 주택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주거는 인간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환경으로,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그 안에서 전개되는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발달, 가족 간의 상호작용 및 사회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sup>2)</sup>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고령자를 위한 주거문제를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가구형태도 점차 변화함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sup>3)</sup>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일부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결과를 한국의 전체노인으로 일반화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일시점에서 단편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종적으로 노인들의 생활환경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을 다양하게 조명하여 고령사회에 적극

\* 정희원,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jaehoon@hnu.kr)  
이 논문은 2015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2010

2) 김동배·유병선·신수민,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서비스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4), 2012  
3) 정재훈,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주거환경 및 삶의 만족도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9(12), 2013

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도시지역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노인의 주거환경과 삶의 변화양상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된 노인실태조사 자료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추이를 종적으로 파악하여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분석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노인 중에서 확률표집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65세 이상의 농촌노인<sup>4)</sup>이다. 자료 수집은 보건복지부에서 199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시작하여 1998년, 2004년, 2008년, 그리고 최근 2014년까지 시행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1차로 표집된 자료 중에서 65세 이상의 농촌노인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주거환경과 관련된 항목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표본에서 무응답 등 결측 항목이 있는 것은 제외하였다. 이 자료는 표본크기도 크고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표집되었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를 한국의 농촌노인으로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농촌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가구형태 및 주거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빈도와 그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그래프를 활용하여 시대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촌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건강상태, 경제형편, 자녀관계 등이 각 시기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농촌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농촌노인의 성별구성은 표 1에서 보듯이 시간의 흐름에도 별 차이 없이 남성이 약 40%로 여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남성의 수명<sup>5)</sup>이 여성보다 짧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연령분포는 1994년도에는 65-69세 이하 노인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년 동안 나이가 많은 노인층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vestigation objects (%)

구 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4년
성별	남	40.2	39.2	39.7	39.1	40.3
	여	59.8	60.8	60.3	60.9	59.7
연령	65-69 이하	41.4	36.1	33.9	28.9	25.0
	70-74 이하	29.3	29.0	29.8	32.6	25.5
	75-79 이하	15.6	19.1	18.5	22.0	24.0
	80 이상	13.7	15.8	17.9	16.6	25.5
	평균	72.3	72.9	73.4	73.6	75.0
학력	무학(글자모름)	45.2	36.1	23.2	24.1	15.5
	무학(글자해독)	32.1	29.9	24.4	21.4	27.3
	초등학교	18.7	25.9	39.2	40.3	33.7
	중고등학교	3.8	6.7	10.6	12.8	19.3
	전문대 이상	0.2	1.4	2.6	1.4	4.2
자녀수(명)		4.9	5.1	4.4	4.6	3.9
표본수(N)		870	1500	1441	4765	2443

Table 2. Elderly who live with their children or not (%)

구 분	2004년	2008년	2014년
자녀동거	28.6	28.1	18.3
자녀별거	71.4	71.9	81.7

Table 3. Children whom elderly wish to live with (%)

구 분	2004년	2008년	2014년
장남	63.8	58.8	51.2
다른 아들	11.0	15.8	12.2
딸	1.0	1.3	1.7
누구든지	24.2	24.1	31.2

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평균연령도 1994년도 72.3세에서 2014년도에는 75.0세로 2.7세가 높아졌다. 학력을 살펴보면 1994년도에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 노인이 77%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43% 정도로 낮아져 노인의 학력도 점차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는 여전히 5%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자녀수는 1998년도 5.1명에서 2014년에는 3.9명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편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농촌노인은 표 2에서 보듯이 2004년도에는 28.6%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4년도에는 응답자의 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노인들이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해석된다. 한편 노인들이 동거를 희망하는 자녀로는 표 3에서와 같이 장남에 대한 선호가 시대가 변하면서 다소 약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른 아들이 12.2%, 아들이나 딸 상관없음이 31.2%, 그리고 딸과 살고 싶다는

4) 본 연구에서 농촌노인이라는 용어는 행정구역상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을 의미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5)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2012)에 따르면 2012년 기준 65세 남성의 기대수명은 82.5세이고 여성의 기대수명은 87.0세로 그 차이는 4.5세이다.

응답은 1.7%에 불과하였다.(2014년 기준) 여전히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경향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2014년 조사 자료에서 농촌노인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이유로는 자녀가 결혼해서(31.0%)와 자녀가 직장이나 학업으로 다른 지역에 있어서(21.4%) 등 외부적인 요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개인생활을 누리기 위해서(15.3%) 또는 살고 있는 곳을 떠나기 싫어서(13.3%) 등 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도 노인단독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 단독가구의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점(27.2%)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불안감(24.1%),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22.8%), 그리고 가사일(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동거가구에서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본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16.9%) 또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11.9%) 등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자녀에게 가사, 육아 등의 도움을 주거나(28.0%)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25.4%) 등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동거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농촌노인에게 몇 세부터 노인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1994년에는 평균 64.2세부터라고 대답하였는데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69.4세로, 20년이 지난 2014년에는 72.0세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운전을 그만 둔 나이는 2004년도 70.2세, 2014년도 70.8세로 대체적으로 70세를 전후해서 자가운전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농촌노인의 가구형태 변화

주거는 사람의 기본욕구 중 하나로 어디서 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어떤 구성원과 함께 살고 있는가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주거지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은 노인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6)</sup> 농촌에서는 도시화의 진행으로 자녀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그림 1에서 보듯이 자녀와 함께 사는 자녀동거가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고 노인들만 사는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4에서와 같이 자녀와 함께 사는 자녀동거가구는 1998년에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04년에 30.6%로 크게 감소한 후 2008년 19.7%, 2014년 11.0%로 계속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반면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는 1998년도 34.1%에서 2008년에 46.7%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55.3%로 농촌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 혼자서 사는 독거가구는 1998년 18.9%에서 2008년에 29.2%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30.0%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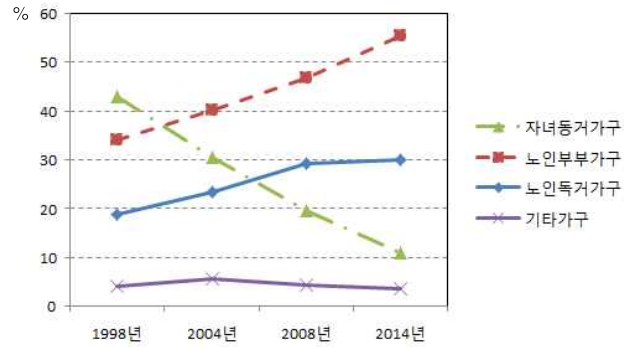


Fig. 1. The changes of living arrangement

Table 4. Living arrangement of the elderly in rural area (%)

구분	1998년도	2004년도	2008년도	2014년도
자녀동거가구	42.9	30.6	19.7	11.0
노인부부가구	34.1	40.2	46.7	55.3
노인독거가구	18.9	23.5	29.2	30.0
기타가구	3.8	5.7	4.4	3.6

\* 각년도 표본추출 조사, 65세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거가구 등 자녀와 떨어져서 노인들만 사는 가구가 85%에 이르면서 노인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왕래빈도와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빈도가 중요해졌으며 실제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up>7)</sup>도 보고되고 있다. 자녀와의 왕래빈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5에서와 같이 1994년에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2004년에는 매월 1회 이상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2014년에는 매주 1회 이상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녀와의 왕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도별 왕래빈도의 변화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Table 5. The frequency of intercourse with their children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4년
주 1회 이상	20.6	37.4	35.9	34.3	33.0
월 1회 이상	24.6	35.3	37.5	32.2	31.0
3개월 1회 이상	31.1	21.6	20.2	23.0	25.0
3개월 1회 미만	23.3	5.7	6.4	10.5	11.0

6) 정경희·이윤경·박보미·이소정·이윤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7) 박순미,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 비교-, 노인복지연구, 47, 2010



Fig. 2. The changes of intercourse frequency

그림 2와 같다. 농촌노인의 자녀와 연락빈도는 그림 3에서 보듯이 매주 1회 이상 연락한다는 분포가 가장 높았으며 1994년에 41.2% 이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매일 1회 이상 연락빈도는 1994년도 9.5%에서 2014년도 29.5%로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3개월에 1회 이상 및 미만의 연락빈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표 6 참조) 전체적으로 왕래빈도는 1998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연락빈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접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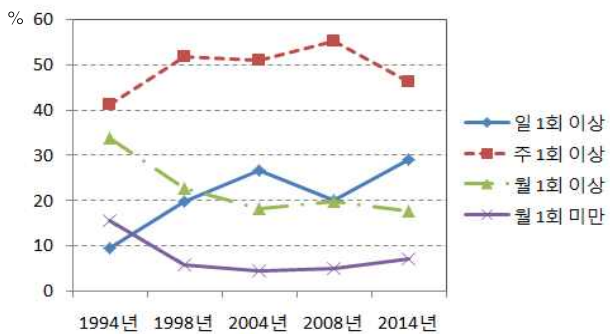


Fig. 3. The changes of communication frequency

Table 6. Communication frequency with their children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4년
일 1회 이상	9.5	19.8	26.6	20.0	29.1
주 1회 이상	41.2	51.8	51.0	55.3	46.3
월 1회 이상	33.7	22.6	18.1	19.8	17.7
월 1회 미만	15.5	5.8	4.3	4.9	7.0

#### 4. 농촌노인의 주거환경 변화

##### 4.1 주택유형

농촌노인가구의 주택유형이 변화하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듯이 1994년에는 단독주택이 97.1%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4년에는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는 1994년에는 1%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9.7%로써 이제 농촌지역에도 아파트가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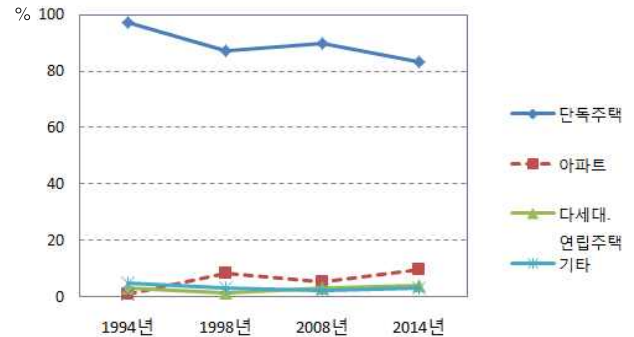


Fig. 4. The changes of housing type

Table 7. Housing type the elderly live in (%)

구분	1994년	1998년	2008년	2014년
단독주택	97.1	87.3	89.7	83.1
아파트	1.0	8.2	5.3	9.7
다세대·연립주택	3.2	1.2	3.0	4.1
기타(무상 등)	5.0	3.3	2.3	3.0

##### 4.2 입주형태

입주형태의 변화는 그림 5에서와 같이 자가소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994년도 92.3%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4년에는 76%까지 떨어진 반면 사택, 관사, 친척집 또는 무료양로원 등에서 세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기타 거주형태가 1994년 5.3%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18%에 이르고 있다. 전세나 월세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이와 같이 농촌노인가구의 자가소유율은 일반가구의 비율<sup>8)</sup>보다는 높지만 점차 낮아지면서 기타 주거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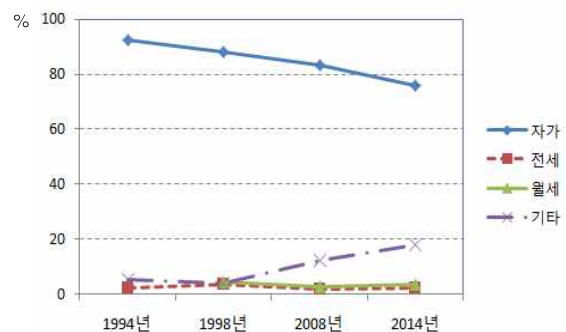


Fig. 5. The changes of home ownership

8)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해양부)에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택의 자가소유율은 53.8%로 조사되었다.

Table 8. Home ownership (%)

구 분	1994년	1998년	2008년	2014년
자가	92.3	87.9	83.2	76.0
전세	2.4	3.5	2.0	2.3
월세		4.5	2.6	3.7
기타(무상 등)	5.3	4.2	12.2	18.0

### 4.3 부엌 유형

부엌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9에서 보듯이 1994년에는 재래식 부엌이 47.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부엌이 입식으로 개량되면서 2004년에는 재래식 부엌(5.7%)은 거의 사라지고 입식 부엌이 94.4%로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후 2008년에 재래식 부엌은 5%에 불과하여 산간 오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촌노인가구의 부엌이 현대식으로 개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9)</sup>

Table 9. Kitchen type (%)

구 분	1994년	2004년	2008년
입식	51.3	94.4	95.0
재래식	47.6	5.7	5.0
기타	1.1	0.1	0

### 4.4 화장실 유형

화장실 유형은 표 10에서와 같이 1994년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81.7%로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수세식으로 바뀌면서 2004년에는 수세식이 54.1%, 2008년에는 78.8%로서 수세식 화장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달리 보면 20% 이상의 농촌노인가구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10. Bath type (%)

구 분	1994년	2004년	2008년
수세식	18.0	64.1	78.8
재래식	81.7	35.7	21.2
기타	0.3	0.2	0

### 4.5 목욕탕 유형

목욕탕 유형을 살펴보면, 표 11에서 보듯이 1994년에는 욕실이 없는 가구가 6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욕실이 있는 가구는 온수가 나오는 욕실이 33.8%, 냉수만 나오는 욕실이 2.4%를 보이고 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많은 주택에서 욕실을 설치하여 욕실이 없는 가구는 14.7%로 줄어들게 된다. 2008년 조사에서는 욕실

이 없는 가구는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가구에서는 욕실을 갖추게 되나 14.1%는 여전히 온수시설이 안된 욕실을 사용하고 있다.

Table 11. Water supply system of bath (%)

구 분	1994년	2004년	2008년
온수	33.8	78.7	85.9
비온수	2.4	6.6	14.1
없음	63.8	14.7	-

### 4.5 주거편리성

2014년 조사에서 농촌노인이 주거환경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공간은 표 12에서 보듯이 화장실 및 욕실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문턱, 계단, 부엌 및 식당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인들이 낙상하는 이유로는 표 13에서와 같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인 경우(30.5%)가 가장 많았지만 바닥이 미끄럽거나(21.3%) 문턱에 걸려서(11.3%)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농촌주거환경개선 시 특히 노인을 배려한 무장애설계를 강화하여 주거환경이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Table 12. Uncomfortable space in housing(2014)

구 분	빈도(명)	비율(%)
화장실 및 욕실	409	16.7
문턱	301	12.3
계단	257	10.5
부엌 및 식당	106	4.3
현관 및 복도	68	2.8
기타	41	2.5
없음	1229	50.3
합 계	2443	100

Table 13. The cause of falling accident(2014)

구 분	빈도(명)	비율(%)
다리에 힘이 풀려서	195	30.5
바닥이 미끄러워서	136	21.3
발을 헛디디서	85	13.3
갑자기 어지러워서	85	13.3
문턱에 걸려서	72	11.3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	42	6.6
기타	24	3.8
합 계	639	100

## 5. 농촌노인의 만족도 변화

농촌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는가(주거환경만족도), 자신의 건강상태에 만족하는

9) 2011년도 이후 노인실태조사 항목에서 부엌 유형, 화장실 유형, 목욕탕 유형 등은 제외된다.

가(건강상태만족도), 자신의 경제상태에 만족하는가(경제상태만족도),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가(자녀관계만족도), 그리고 현재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전체생활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994년부터 2004년, 그리고 2011년<sup>10)</sup>까지 자료를 분석한 만족도의 변화추이는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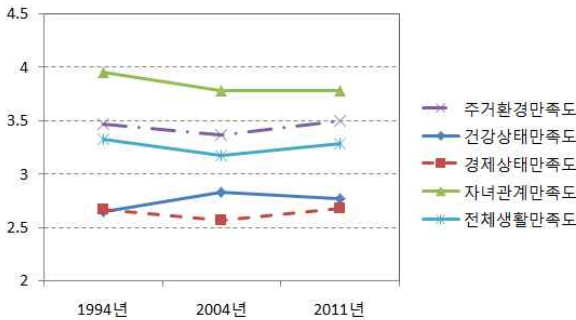


Fig. 6. The changes of the elderly's satisfaction

Table 14. The elderly's satisfaction in rural area (%)

구분	1994년	2004년	2011년
주거환경만족도	3.47	3.37	3.50
건강상태만족도	2.65	2.83	2.77
경제상태만족도	2.67	2.57	2.68
자녀관계만족도	3.95	3.78	3.78
전체생활만족도	3.33	3.17	3.29

세부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표 14에서 보듯이 주거환경만족도<sup>11)</sup>의 경우 1994년 3.47, 2004년 3.37, 2011년 3.50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주택이 도시주택보다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소유율이 높고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익숙해져 정이 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강상태만족도의 경우 1994년에 2.65에서 2004년에는 2.83으로 높아졌다가 2011년 2.77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상태만족도에서는 1994년에 2.67에서 2004년에는 2.57로 다소 떨어졌다가 2011년에는 2.68로 다시 높아졌다. 다음으로 자녀관계만족도에서는 1994년에 3.95, 2004년 3.78, 2011년 3.78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무응답층이 많고 부모가 자녀를 낮게 평가하길 꺼려하는 정서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전체생활만족도는 1994년에 3.33에서 2004년 3.17, 2011년 3.29로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

10)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서는 주거환경만족도와 전체생활만족도 항목이 빠져 있어서 시대적인 흐름의 파악을 위해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1) 만족도의 측정단위는 5점 척도(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었으며 3보다 클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전반적으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자녀만족도와 주거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건강만족도와 경제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장에서 은퇴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상태가 약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2004년도가 여러 항목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IMF 이후 경제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런 주거환경만족도, 건강상태만족도, 경제상태만족도, 자녀관계만족도 등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각 시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자를 독립변수로 하고 후자를 종속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4년의 분석결과 표 15에서 보듯이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거환경만족도( $\beta=.224$ ,  $p<.001$ ), 경제상태만족도( $\beta=.277$ ,  $p<.001$ ), 자녀관계만족도( $\beta=.261$ ,  $p<.001$ )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만족도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었다. 2004년의 경우 표 16에서와 같이,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경제상태만족도( $\beta=.403$ ,  $p<.001$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자녀관계만족도( $\beta=.216$ ,  $p<.001$ ), 건강상태만족도( $\beta=.193$ ,  $p<.001$ ), 주거환경만족도( $\beta=.183$ ,  $p<.001$ )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분석결과 표 17에서 보듯이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건강상태만족도( $\beta=.250$ ,  $p<.001$ )와 경제상태만족도( $\beta=.242$ ,  $p<.001$ )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녀관계만족도( $\beta=.143$ ,  $p<.001$ )와 주거환경만족도( $\beta=.077$ ,  $p<.001$ )에서도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Table 15. Regression of life satisfaction of the predictor(1994)

변수	B	$\beta$	P
(상수)	.445		
주거환경만족도	.222	<b>.224</b>	<.001
건강상태만족도	.062	.066	.019
경제상태만족도	.269	<b>.277</b>	<.001
자녀관계만족도	.281	<b>.261</b>	<.001
$R^2 = .394$ , 수정된 $R^2 = .391$ , $P < .001$			

B= 비표준화 회귀계수,  $\beta$ = 표준화된 회귀계수

Table 16. Regression of life satisfaction of the predictor(2004)

변수	B	$\beta$	P
(상수)	-.159		
주거환경만족도	.179	<b>.183</b>	<.001
건강상태만족도	.192	<b>.193</b>	<.001
경제상태만족도	.436	<b>.403</b>	<.001
자녀관계만족도	.193	<b>.216</b>	<.001
$R^2 = .331$ , 수정된 $R^2 = .330$ , $P < .001$			

B= 비표준화 회귀계수,  $\beta$ = 표준화된 회귀계수

Table 17. Regression of life satisfaction of the predictor(2011)

변수	B	$\beta$	P
(상수)	.548		
주거환경만족도	.079	<b>.077</b>	<.001
건강상태만족도	.117	<b>.250</b>	<.001
경제상태만족도	.138	<b>.242</b>	<.001
자녀관계만족도	106	<b>.143</b>	<.001

$R^2 = .231$ , 수정된  $R^2 = .230$ ,  $P < .001$

B= 비표준화 회귀계수,  $\beta$  표준화된 회귀계수

## 6. 결론

본 연구는 전국 농촌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20년 동안 가구형태, 주거환경, 그리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분석 결과가 노인복지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노인은 전반적으로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수는 점차 줄어들어 2014년에는 평균 3.9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며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농촌노인은 18%에 불과한데, 그 중 51%는 장남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로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받는 것(29%)보다 오히려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53%) 동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던 전통적 가치관에서 변화하여 부모들도 자녀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인복지가 가족 안에서 해결할 시점을 지나 사회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둘째, 농촌노인의 가구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자녀들이 점차 도시로 떠남에 따라 자녀동거가구는 1998년 43%에서 2014년 11%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 혼자 또는 부부끼리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왕래나 연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자녀와의 왕래빈도는 한동안 증가하다가 1998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연락빈도는 매일 또는 매주 연락이 1994년 50%에서 2014년 85%로 시간이 흐르면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함께 모여 살며 유대 관계를 나누던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점차 넓은 범위로 확대되면서 자동차나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자녀와 동거 여부보다는 노인이 자녀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재훈(2013)은 노인과 자녀의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요소로서 자녀의 빈번한 연락이나 방문이 경제적인 도움이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지원이 가족단위에서 사회로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비동거 가족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비상시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사회유대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넓어서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복지재원이 소요되므로 발전된 통신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관리하여 비상시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셋째, 농촌노인의 주거환경에서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아파트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입주유형은 대부분 자가 소유를 하고 있어 도시지역보다 주거안정성은 높지만 주택이 오래되어 불편하고 혼자 사는 외로움과 가사노동 등이 부담스러워 기타 무료양로원이나 노인공동거주시설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부엌은 1994년에는 재래식 유형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이제 입식 부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장실은 1994년 재래식이 82%로 주류를 이루다가 점차 수세식으로 바뀌었지만 2008년에도 20% 정도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서 화장실 개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목욕탕은 대부분 가구에서는 욕실을 갖추게 되나 2008년 조사에서 14%는 여전히 온수시설이 안된 욕실을 사용하고 있다. 2014년 조사에서 농촌노인이 주거환경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공간은 화장실 및 욕실이었으며, 다음으로 문턱, 계단, 부엌 및 식당 등으로 미끄러운 바닥이나 단차이가 있을 때 노인들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농촌의 주거환경이 노인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태,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농촌노인들은 자녀관계와 주거환경에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는 만족 정도가 낮았고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대별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주요요소로서는 1994년에는 경제상태( $\beta=.277$ ,  $p<.001$ ), 자녀관계( $\beta=.261$ ,  $p<.001$ ), 주거환경( $\beta=.224$ ,  $p<.001$ )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는 경제상태( $\beta=.277$ ,  $p<.001$ )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으며 자녀관계, 건강상태, 주거환경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건강상태( $\beta=.250$ ,  $p<.001$ )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상태, 자녀관계, 주거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12)에서 밝혔듯이 노인에게 경제상태와 건강상태는

12) 박광희·한혜경,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 11, 2002  
박순미,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 비교-, 노인복지연구, 47, 2010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주거환경 또한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촌노인은 자녀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현실에 익숙해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등의 개선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집 구조나 재료, 가구 등에 있어서 노인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따라서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도 노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개선 정책과 계획지침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노화에 대응하는 주택개조는 오랫동안 살아온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는 노인의 욕구에도 부합하고 노인시설로의 이동을 줄여서 국가적으로도 장기적인 노인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안정된 생활(aging-in-place)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읍·면 단위의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여러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시 노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넓은 농촌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김동배·유병선·신수민,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4), 2012
2. 박광희·한혜경,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 11, 2002
3. 박순미,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도시 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 비교-, 노인복지연구, 47, 2010
4. 손신영,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인구학, 26(3), 2006
5. 윤명숙·이묘숙, 노인의 경제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2), 2012
6. 정경희·이윤경·박보미·이소정·이윤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7. 정재훈,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주거환경 및 삶의 만족도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9(12), 2013
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2010, 2012, <http://kosis.kr>
9. Ball, R., and Chernova, K., Absolute Income,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8, 2008
10. Asakawa, T.; Koyano, W.; Takatoshi A.; Hiroshi S., Effects of Functional Decline on Quality of Life among

the Japanes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50(4), 2000

접 수 일 자 : 2015. 10. 10

심사완료일자 : 2015. 11. 20

게재확정일자 : 2015. 11. 23

윤명숙·이묘숙, 노인의 경제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2), 2012

손신영,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인구학, 26(3), 2006

Ball, R., and Chernova, K., Absolute Income,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8, 2008

Asakawa, T.; Koyano, W.; Takatoshi A.; Hiroshi S., Effects of Functional Decline on Quality of Life among the Japanes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50(4), 2000